

1. 의승수군의 활동과 임진왜란

1) 전라좌수영 의승수군의 조직과 활동

충무공 이순신 휘하에는 관군과 더불어 많은 의병이 있었다. 그 중에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한 의승장으로 삼혜(三惠), 의능(義能), 성휘(性輝), 신해(信海), 지원(智元), 수인(守仁), 혜희(惠熙), 자운(慈雲), 옥형(玉洞) 등이 알려져 있다. 이순신이 “근일에 와서 용감한 승려에게 힘입어 위세를 올린다.”고 할 정도로 의승수군은 해전 승리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의승수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1592년 8~9월 영남지역에 주둔하던 왜적들로부터 관할 구역을 방어하기 위해 이순신 휘하 전라좌수영의 5개대로 창설되었다.¹⁾ 이들은, 이순신이 관내 여러 사찰에 요청하자 이에 호응하여 자원한 승려들로 구성되었다. 이들 가운데 순천 주진(駐鎭)의 삼혜 승장과 본영(本營)의 의능 승장은 의승수군의 상징적 존재로 이순신의 해전에서 군사의 역할을 다하였다.

1594년 1월 의승수군은 삼혜 승장을 도총섭(都摠攝)으로 하는 단일체제로 정비되고 이때부터 흥국사(興國寺)에 주진(主鎭)하는 상설군으로서 제도화되었다. 창설시에는 400여 명이었으나, 정비기에는 본영, 즉 흥국사에 300명, 순천과 3지역대를 합하여 300명이었다. 이순신은 의승수군 가운데서 용맹과 지략을 겸비한 승려를 선발하여 승장으로 임명하고, 부대를 편성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통솔케 하여 수륙양전에 힘쓰도록 하였다.

또한 육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례 석주관(구례군 토지면 칠곡리)과 광양 두치(광양군 다압면 섬진리) 등 요해처를 지키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1592년(선조 25) 9월경에 군인을 모집하였다. 이때 400여 명의 승군이 1개월 내에 모였다. 그는 특히 용맹과 지략을 갖춘 자를 골라 각기 승군을 통솔케 하였다. 순천 거승 삼혜를 시호별도장(豺虎別都將)으로, 광양 거승 성휘를 우돌격장(右突擊將)으로, 광주 거승 신해를 좌돌격장(左突擊將)으로, 곡성 거승 지원을 양병용격장(揚兵勇擊將)으로 삼았다. 삼혜는 순천에 유진케 했으며, 성휘·신해·지원 등은 각각 두치·석주·운봉 팔양치(남원 동면 인월리) 등 요해처를 관군과 협력하여 지키도록 하였다.²⁾ 홍양 거승 의능이 이순신 휘하에서 유격별도장이 되어 본영에서 유방(留防)케 된 것은 바로 이무렵이다.

임진왜란 당시 의승수군의 편성을 승장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³⁾

승장은 크게 별도장과 돌격장으로 나누어졌다. 별도장은 승군들의 최고 지휘관인 승군대장으로 보이며, 돌격장은 군사적 요충지를 방어하며 적을 공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된다. 순천에 주진한 삼혜는 송광사의 승려였다. 그가 송광사에서 많은 승려들을 승군으로 거느리고 내륙의 요충지에 있었기에 별도장이 되었지 않았나 여겨진다. 본영에 머문 의능은 전라좌수영에

가까운

1) 왜란 당시 전라좌수영의 의승수군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眞玉 편저, 『흥국사』, 여천, 1989; 梁銀容, 「全羅左水營의 義僧水軍에 관한 연구」, 『辰倭亂과 佛敎義僧軍』, 경서원, 1992; 金相鉉, 「義僧將 慈雲·玉洞 二禪師考」, 『전라좌수영과 임진왜란 의승수군의 활동』(全羅左水營 再照明 學術大會 발표요지문), 여천시, 1996.

2) 『李忠武公全書』 권4, 狀啓2 分送義僧把守要害狀.

3) 양은용, 「전라좌수영의 의승수군에 관한 연구」, 『임진왜란과 불교의승군』, 경서원, 1992, 304쪽.

임진왜란 당시 의승수군 승장

승 장	출신지	직 함	임 무	비 고
삼 혜	순 천	시호별도장	순천수방	수륙양전
의 능	홍 양	유격별도장	본영수방	수륙양전, 홍양(고홍)
성 휘	광 양	우돌격장	두치수방	두치(광양)
신 해	광 주	좌돌격장	석주수방	석주(구례군 내)
지 원	곡 성	양병용격장	운봉수방	남원 팔양치

홍국사에 주진하여 이순신의 지휘를 받으면서 수륙양전을 도모하였다. 승장들의 칭호는 한결같이 유격대나 돌격대의 대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승장들이 거느린 승군들이 전투부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란시 의승수군은 주로 전투임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격대나 돌격대로 운용되어 해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공헌하였다.⁴⁾

삼혜와 의능이 이끈 의승군은 이순신의 해전에서 커다란 전과를 올리며 활동하였다. 1593년 2월 22일 웅천상륙작전에서는 이순신의 수륙양면작전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의승병들이 창검·활·화포 등을 사용하여 무수한 적병을 사살하였다고 한다.⁵⁾ 이때 이순신은 삼혜와 의능 두 승장에게 각각 전선을 나누어주고 수군에 소속시켜 바다에 나가도록 하였다. 두 승장은 경상도의 여러 장수들과 함께 웅천 앞바다에 가까이 배를 대어 거깃으로 상륙할 기세를 꾸미고 적을 당황케 함으로써 갈팡질팡하는 틈을 타 이곳에 모여 있는 적을 거의 섬멸시켰다고 한다.⁶⁾

일본은 1597년 정초에 또다시 바다를 건너 쳐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정유재란이다.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일본군은 전라도 해안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8월 8일에는 순천도 위태롭게 되었다. 이순신이 순천에 이르렀을 때는 성 안팎에 인기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병사는 무기도 남겨둔 채 달아나버린 후였다. 오직 승려 혜희만이 찾아와, 이순신은 그에게 의승장의 직첩을 주어 무기를 처리케 하였다.⁷⁾

연해지역 해상의병이 전라좌수군과 연계되는 과정에서 육상의병과의 마찰도 없지 않았다. 특히 삼혜와 의능이 거느린 의승병의 경우, 이들의 지휘계통 및 소속문제를 놓고 육상의 의승군과 전라좌수군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노정되고 있었다. 전국 의승군의 총수인 유정(惟政)과 호남의승장 처영(處英) 등이 수군에 자원한 의승병을 탈취했을 뿐 아니라 임의로 면역·면천공문(免賤公文)을 발급해주며 군량 봉납(捧納)을 독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장계를 통하여 그 불법성을 조정에 고발함과 동시에 그들을 엄중히 징치할 것을 요청하였다.⁸⁾

의승수군은 직접적인 전투 이외에도 군량의 수송과 조달, 일반 잡역, 산성의 수축과 수비를 담당하였다. 이순신은 의승장들의 활동에 포상을 요청하여, 승장들에게 사호(賜號)나 포상을 주었다.⁹⁾ 의승수군은 왜란이 끝난 뒤에는 홍국사 주진의 본대만 국법으로 제도화되었던 것

4) 양은용, 위의 논문, 304~305쪽.
 5) 『이충무공전서』 권3, 討賊狀.
 6) 『亂中日記』, 기사 2월 22일조.
 7) 『단중일기』, 정유 8월 8일조.
 8) 『이충무공전서』 권4, 封進僧將僞帖狀.
 9) 『이충무공전서』 권4, 請賞義兵諸將狀.

으로 보인다. 이순신의 해전에 크게 공헌하고 사후 오랜 기간 추선공양(追善供養) 하여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의승장은 자운과 옥형 승장이다. 이순신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의승장은 임진왜란 초기에는 삼혜와 의능, 왜란 이후에는 자운과 옥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들의 의승장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실증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자운은 송광사 출신의 승려로 생각되며 왜란이 끝난 뒤에는 송광사로 돌아간 것으로 여겨진다. 옥형은 고흥 출신으로 흥국사와 인연을 맺었고 왜란 이후에는 석천사에서 이순신의 천도에 여생을 보냈다.